

네 삶의 큰 가르침 (하)

황용순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불교를 만난 후 가정의 평화를 되찾았지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불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혼자서 불교 교리를 공부해보자는 마음을 먹고 불교방송을 듣기 시작했다. 매일 같이 라디오를 옆에 두고 불교방송을 경청했는데, 당시 중앙승가대총장이신 종범 스님의 교리공부가 시작됐다.

매회 방송을 놓치지 않고 노트정리를 해가며 들었고, 혹시 일이 있어 방송을 듣지 못할 때는 녹음을 해 놓고 들었다. 그렇게 메모를 하며 방송을 들으니 불교란 어떤 종교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환희심이 생겼다.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 세간의 모든 이치가 다 그 속에 담겨 있었다. 인연법, 연기법,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등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다 부처님 말씀 속에 있었던 것이다.

전생에 그나마 선공공덕이 있어 부처님의 진리를 접하게 됐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더구나 정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하겠지만 나는 어느새 부처님 법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가!

이 어찌 크신 은혜가 아니라 말인가? 이 같은 감동은 나를 벅차오르게 만들었고 인과의 이치를 모르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원망하고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었다. 누구의 탓도 아니요 원망도 아니요 좋고 나쁜 것, 슬픔도 기쁨도, 그 어떤 대립되는 모든 것도 다 내 것이었던 것을!

매일 수없이 절을 하면서 저절로 눈물이 솟구쳐 흐르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참회하고 또 참회할 뻔이었다. 당시에는 제일 큰 소원이 우리 남편이 삼

보에 귀의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불법과 만날 수 있도록 늘 발원했다. 당시 남편은 나에게 종교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자주 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불교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집에서는 불교계 신문을 구독해서 봤는데, 1주일에 한 번씩 오는 신문에는 큰 스님 법문이라든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한 좋은 글귀들이 많이 실려 있었다.

늘 화만 내고 어긋나게 나가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신문을 찾아보게 되었고 점점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집에 갈 것을 은근히 이야기하며 불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하면서 속으로는 연신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다. 지극한 발원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못 이룰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더욱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 남편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디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고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보살님이 혼자 목걸이를 하고 우리 매장에 들어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느 절에 나가시냐고 물었다니 방배동에 있는 정광사에 다니고 했다. 거사님들도 많이 오고 스님도 훌륭한 분이 라고 하면서 주말에 경주 남산에 성지순례를 간다고 했다.

"성지순례에 같이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니 이미 접수가 다 끝난 것 같긴 하지만, 절에 전화를 한 번 해보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 딱 두자리가 남았다고 했다.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열린 신청했고 우리 부부는 성지순례를 가게 됐다.

성지순례에서 만난 정광사 스님들 중에는 거사님들도 무척 많았고 신심 깊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편도 여기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처음 뵈던 분이 안성 도피안사 주지

불교계 신문과 방송통해 교리공부 '반야심경' 사경 후 마음 평온 찾아 삶이 쫓아님을 불법 통해 깨달아

승안 스님이셨다. 스님의 첫인상은 참으로 큰 뜻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도피안사에서 공부해보리라 생각했는데 마침 <반야심경> 강의를 시작되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성지순례를 다녀온 느낌이 좋았는지 선풍 공부에 동참하게 됐다. 1회, 2회, 3회 계속되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강의에 참석했고, 도반들과 어울려 공부한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스님의 강의는 정말 명강이었다.

또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반야심경>에 있었다. 우리 남편도 속으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이치를 보는 듯 좋아했다. 공부하는 동안 스님께서 남편을 주시하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남편의 공부가 무르익어갈 무렵, 스님은

남편에게 법회의식의 사회를 볼 것을 부촉하셨고 남편은 망설임 끝에 승낙했다. 그 후 남편은 법회 때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금강경> 강의와 <반야심경>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했다. 남편 스스로도 자신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부부는 <반야심경> 사경기도를 통해 번뇌 망상이 일고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경을 꾸준히 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됐다. 하루 천 배씩 103일을 기도하고 내 몸에서 허물이 벗겨지는 꿈을 꾸었고, 천도재를 통해 가정평화와 사업성취를 이루었다. 이처럼 불교를 만나면서 우리 가족이 입은 가피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나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남편의 불교 입문도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봉사하고 전법하고 언제든 달려가 열가 시달릴까지 하는 남편을 보고 있노라면 지난날의 고통은 절대 고통이 아니었고 나를 성숙시켜주는 계기였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 부부가 부처님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된 불교! 불법 안에서 본 남편은 항상 고맙고 감사한 존재였다. 이같은 이치를 알게 해주신 불보살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깊은 신심으로 보살펴주시는 도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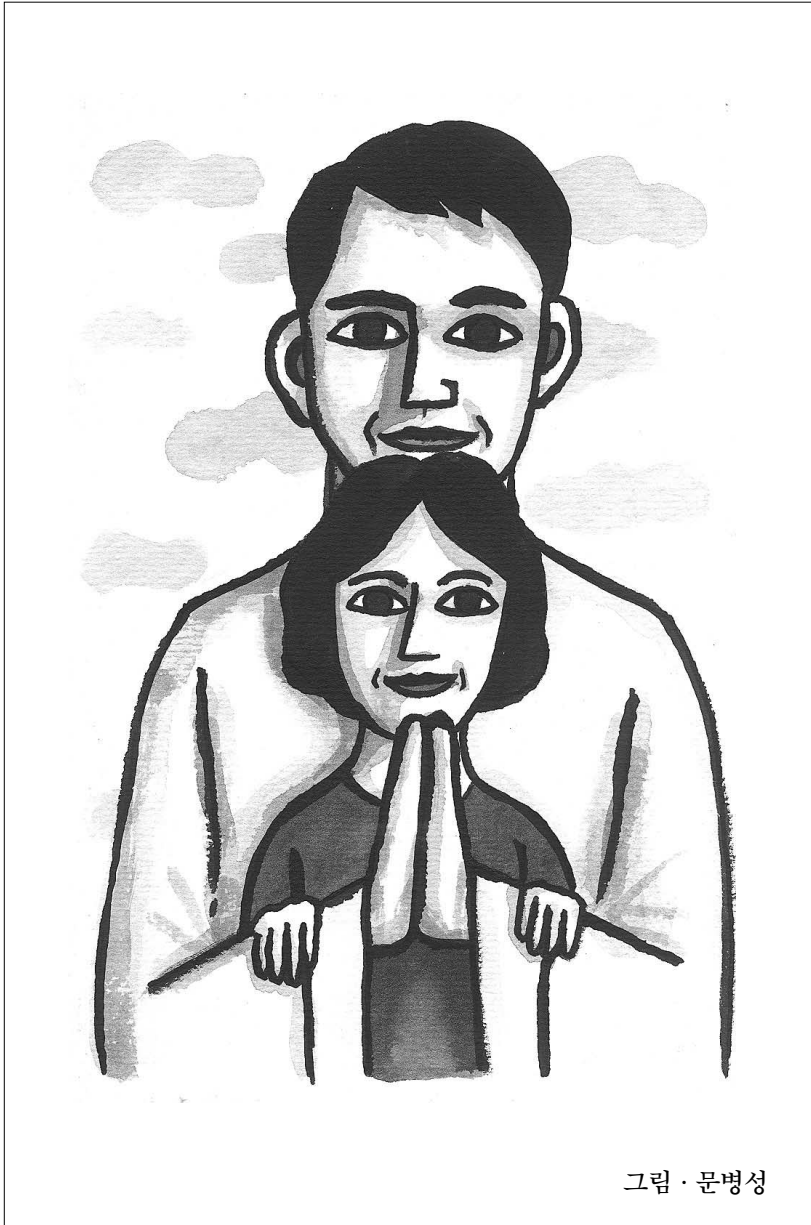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한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snoopy@buddhapia.com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탠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 소리공양 종목 ◇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 고성능 무선마이크
- ▷ 각종 마이크 판매
- ▷ 법당전용 스피커

DX-707 스탠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기초과정 ● 고급과정 ① 맥진법 ② 사암침술반 ③ 즉효요법반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鍼法), 비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2005. 9. 5 월·화반, 수·목반, 금·토반(주·야간: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이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놓아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9월 5일 개강

사암 침술 학회

- 서울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 부산 : 부산 동구 좌천동 567-2 다전리치빌 1004호 (좌천역 1번 출구)
문의 : 018-312-7110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이 책이 던지는 여덟 가지 질문

- 1 아함경에서 말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 6 주역에서 말하는 선천·후천의 개벽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 7 극락세계는 진정교 서방세계에 있는가?
- 8 최근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미륵불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신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재 7불의 본말을 밝혔듯이, 미륵이 오실 때도 7불의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시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혀가 되어 있다. 이제 일곱 분의 도통 연원과 의의를 밝히며 비로소 드러나는 진법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해조음 053) 624-5586

韓·中 秘方針法

- **음양원리 침법**: 우리 인체의 365혈을 단 7혈만 응용하는데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든지 침 1-3개만 꽂으면 1분 이내로 효과를 볼 수 있고 간단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5시간만 강습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비한 가정 의학이다.
- **사상체질 침법**: 사상체질을 정확히 감정하는 법과 체질에 맞는 음식 궁합과 한약재를 처방하고 간단한 체질공식 침법으로 만병을 고친다.
- **평형 침법**: 중국 인민 장교들에게만 비밀리에 전수 되어온 1침법으로 사병들을 치료하였던 것을 왕문원교수에 의해 세상에 밝혀진 침법.
- **전통활력법**: 220V 전기를 직접 사람이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바로 최고의 기공력을 낼 수 있다. 사기를 받지 않고 손기가 없다. 전립선염이 낫고 상능력이 회복된다. 마비된 신경이 살아난다. 독소가 배출되고 정상체중으로 회복된다. 디스크 수술 2번에도 사라지지 않던 통증이 사라진다.

황제내경 맥진법과 복진법으로 인체에 모든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암도인 침법을 1시간의 강의로 원리를 통달 할 수 있게 강의하여 드림)

■ **강의시간: 8월 30일 부터 9월 2일까지(4일)**
오후 3시부터

■ **숙식제공 4일간 실무교육**: 보시금 2백만원 (예약전화 및 사절 / 선착순 10명, 예약 선입금)
농협 457109-52-098389 출점소

■ **찾아 오시는 길**: 공주시에서 청양가는길 13km 오셔서 공수원 4거리 하차(신풍면 쪽) 900m 좌측, 대나무 있는 곳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번지 천제 불국사 의성 함장

041)855-7114, 016-663-2159